

2010~12년 서울시뮤지컬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뮤지컬 버전인 '투란도(投蘭圖)'를 연출, 제17회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을 받았다. 1994년 국립극장이 주관한 '올해의 좋은 연출가상', 2010년 근정포장, 2011년 한국 문화산업대상 국가브랜드위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2013년 1월부터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기예술학부 학부장을 맡았다.

## 무용

### ■ 개요

2015년 무용계에서는 현역 은퇴를 앞둔 발레리나 강수진을 비롯해 고별, 은퇴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다양한 시도로 주목받은 국립무용단은 다른 장르와의 협업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고, 유럽에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전파했다. 현대무용가들도 현대무용의 본거지인 독일 등 유럽 무대에 초청받아 호평받았다.

'한국춤의 거목' 우봉(宇峰) 이매방 명인 등 한국무용가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 ■ 아듀! 강수진...무용수, 무용단 잇따른 고별무대

2016년 현역에서 은퇴하는 48세의 발레리나 강수진이 11월 한국에서 고별 무대를 열어 고국 관객들과 작별했다.

강수진은 2016년 7월 22일 독일에서 예정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오네긴'을 끝으로 30년 발레리나 인생을 마감한다. 그는 정식 은퇴에 앞서 고국에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이 은퇴작을 먼저 선보였다. 한국에서 선 마지막 무대였다.



▲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 '오네긴' 프레스 리허설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의 민간 직업 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SBT)의 김인희 단장도 10월 '창단 20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무용수로서 공식 은퇴했다. 52세의 나이로 무용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40년 만이다.

모나코 왕립발레학교를 거쳐 유니버설발레단, 국립발레단

의 수석 무용수를 지낸 김 단장은 10년 전인 SBT 10주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정식 발레 무대에 서지 않고 경영에 전념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한국 최초의 현대무용단인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도 12월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을 끝으로 해단했다.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은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로 불리는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이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간 차원의 창작활동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1975년 창단한 단체다.

이화여대 무용과를 주축으로 한 이 단체의 활약으로 현대무용이 전국 대학에 급속도로 보급됐다. 이곳에서 초기 현대무용 작품 대부분이 나왔고, 현재 한국 현대무용계를 이끄는 수많은 현대무용가가 배출됐다.

### ■ 국립무용단 현대로, 세계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한국무용으로 호평받은 국립무용단은 2015년에도 전통의 재해석, 다른 장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새롭고 파격적인 시도들을 계속했다.

민속무용과 궁중무용, 종교제례, 불교무용까지 의식을 위한 모든 종류의 한국 무용을 망라해 현대적으로 풀어낸 '제의'(Ceremony 64), 수석무용수 최진옥이 안무하고, 영화감독 임필성이 연출한 '적(赤)', '암살', '도둑들' 등 유명 영화의 음악감독으로 활약해온 음악가 장영규가 처음으로 무용 연출에 도전한 '완월(玩月)', 한국무용 '단(壇)'과 '묵향(墨香)'에서 세련된 연출로 호평받은 디자이너 정구호가 다시 한 번 연출한 '향연' 등 신작들을 쏟아냈다.

더불어 2014년 초연한 '회오리'(VORTEX)로 11월 프랑스 남동부 도시 칸의 루이 루미에르 극장에서 열린 '2015 칸 댄스 페스티벌' 개막공연을 장식하며 세계 관객과도 만났다.

칸 댄스 페스티벌은 1985년 창설된 세계적 무용 축제다. 한국 무용단의 작품이 초청된 것도, 국립무용단이 해외 무대에 출연료를 받고 작품을 선보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회오리'는 핀란드 출신 현대무용 안무가 테로 사리넨이 안무한 작품이다. 국립무용단이 창단 52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안무가와 협업해 만들었다. 한국무용 고유의 우아한 선과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안무를 매혹적으로 살려 호평을 받았다.

### ■ 유럽으로 뻗은 한국 현대무용

현대무용가 안은미는 9월 '현대무용의 성지' 프랑스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파리시립극장) 대극장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공연했다. 그는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사심없는 댄스',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3부작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호평받았다.

국립현대무용단의 대표작 '불쌍'(Bul-ssang) 등도 8월 독일 최대 현대무용축제 '탄츠 임 아우구스트'(Tanz im August)에 공식 초청됐다.

'불쌍'과 함께 안무가 이재영을 주축으로 하는 무용단 '시나브로 가슴에'의 '이퀼리브리엄'(Equilibrium), 안무가 정금형의 '7가지 방법'도 함께 초청받았다. 이 축제에 한국 무용단이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이매방 명인 등 한국 무용가들 잇따라 별세

‘한국춤의 거목’ 우봉(宇峰) 이매방 명인이 8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1927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이 명인은 생존 예술가 중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등 두 분야의 예능보유자였다. 7세 때 목포 권번(기생들의 조합) 장의 권유로 권번학교에 들어가 춤을 배우기 시작해 80년 넘게 전통춤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인물이다.

이대조, 이창조 선생 등으로부터 승무와 북놀이, 검무 등 춤의 기본기를 익히고 5년간 중국에 살면서 전설적인 무용가인 매난방에게서 칼춤과 등불춤을 배웠다.

한국무용가 지희영씨도 8월 17일 서울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1949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지 씨는 최승희를 잇는 신무용을 고집해온 남성무용가다.

지 씨는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 무용과에 들어갔다가 최승희의 춤을 배우기 위해 그의 수제자인 ‘한국 신무용의 대모’ 김백봉(경희대 명예교수)의 문하로 옮겨 경희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여성 스승을 사사했지만, 남성적인 힘을 보태 강하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춤사위를 만들어냈다.

## 영화

### ■ 개요

2015년은 한국영화계가 같은 달 ‘쌍천만 영화’라는 진기록을 달성한 한해였다. 한국영화는 4년째 관객 1억 명대를 유지하며 관객몰이를 이어갔으나, 한해를 상·하반기로 나뉘면 온도 차가 컸다.

상반기에는 역대 외화 중 최단기간 1천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수립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 2)을 비롯해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주라기 월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등 외화가 극장가를 지배했다.

여름 들어서부터 한국영화의 반격이 시작됐다. ‘암살’과 ‘베테랑’이 연이어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하며 ‘쌍천만’ 시대를 열었다. 하반기에도 ‘사도’, ‘탐정: 더 비기닝’, ‘검은 사제들’, ‘내부자들’ 등 한국 영화의 강세가 이어졌다.

홍상수 감독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비롯한 국내 다양성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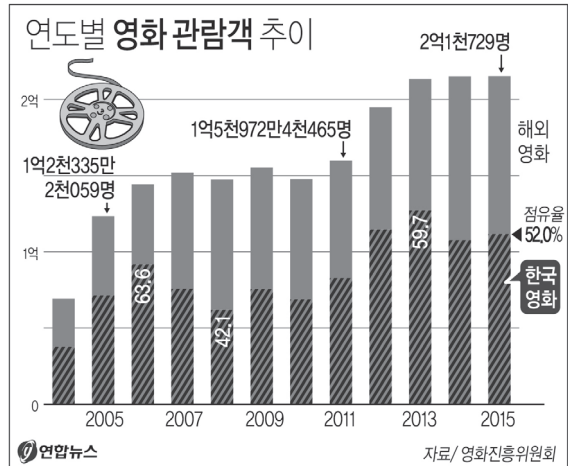
영화계에서는 각종 표준계약을 마무리하는 노력이 이어졌으며 중국 자본과의 합작도 각각도로 추진됐다. 영화계의 ‘큰 별’들이 지는 곳은 소식도 있었다.

### ■ 영화 관객수 역대 최다·매출액도 사상 최대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5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액은 2조1천131억원으로, 종전 최대였던 2014년 매출액(2조276억원)보다 1.0% 증가했다.

영화산업 매출은 2010년부터 6년째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객 수(2억1천729명)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영향이 가장 크다. 인구 1명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4.22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영화가 전체 영화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영화의 관객 수는 전년보다 4.9% 증가한 1억1천293만 명(관객 점유율 52.0%), 외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1억436만 명(점유율 48.0%)이었다. 박스오피스 10위 안에는 한국영화 6편이 포진했다.



IPTV, 인터넷 VOD 등 디지털·온라인 부가시장 규모도 2014년보다 12.7% 늘어난 3천349억원으로 집계됐다. IPTV 시장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15.7% 증가하면서 전체 부가시장 매출의 78%를 차지했다. 2014년 매출액이 감소했던 인터넷 VOD 시장은 16.7%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영화 수출실적은 5천550만 달러(약 674억원)로 전년보다 12% 하락했다. 영화 완성작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2천937만 달러(약 357억원)로, 전년보다 11.3% 상승했다. 한국영화 수출 편수는 전년보다 121편 늘어난 650편으로 집계됐다. 평균 수출가는 편당 2만5천882달러(약 3천143만원)였다.

### ■ 한국영화 같은 달 ‘쌍천만 시대’ 개막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 ‘암살’(1천270만 명)이 광복절 70주년에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 개봉 25일째의 일이었다. 2015년 개봉한 한국영화 중 처음으로 관객 1천만 명 고지에 오른 영화였다. 역대 한국영화로는 12번째이고, 외화까지 포함하면 16번째다.

정확히 2주 뒤에 류승완 감독의 액션영화 ‘베테랑’(1천341만 명) 역시 관객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서었다. ‘베테랑’은 8월 5일 개봉한 이후 9월 2일까지 29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해 가장 오랫동안 정상을 고수하기도 했다.

같은 해 개봉한 두 영화가 관객 1천만 명을 넘어서는 적이 있었지만 같은 달에 두 영화가 나란히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흥행순위로 ‘베테랑’은 4위, ‘암살’은 8위에 올랐다.

8월이 영화시장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경쟁작이 같은 시기